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on a child peer interaction
: The mediation of marital conflict

오세현(Oh, Se Hyeon)** / 강현아(Kang, Hyun Ah)***

◆ 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부갈등이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방법: 한국아동패널 4차 - 5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아 910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첫째,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갈등은 또래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또래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을 통해 또래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또래 상호작용,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 유아발달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hkang3@sookmyung.ac.kr)

I. 서론

유아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영아기 시절을 지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가족 이외의 또 다른 의미 있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중에서도 유아기에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을 의미한다(Corsaro, 1985; Johnson, Christie, Yawkey, & Wardle 1987).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성인이 주도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갈등을 경험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경험하며(최혜영, 이은혜, 2005; Shaffer, 2000) 이러한 경험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Lin et al., 201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특히 놀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유아는 비사회적인 놀이를 하는 혼자놀이에서 만 3세를 기점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래와의 협동을 시도하게 되는 병행놀이가 나타나다가 만 4세에는 어휘력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또래와 함께 노는 연합놀이를 발달한다(신유림 등, 2007). 놀이를 통해 나타나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유아가 발달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이후의 사회적 규칙, 기술습득, 대인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남궁령, 2014; 남소현, 김영희, 2000; 최혜영, 이은혜, 2005; Schaffer, 2000)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적 예측변인이다(남궁령, 2014; 정옥분 등, 2011; Shaffer, 2000).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서 부모를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보다 어머니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송영주, 2017; 이선남, 이경옥, 2015; 정옥분 등, 2011). 그러나 아버지 역할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Lamb, 198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아버지 요인 또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의 양육 역할에 주목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아버지의 음주행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이유로 음주량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김민혜, 2018). 실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평균 소비량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고가영, 2015),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남성 중심의 소주 만취 문화로(이해국, 2017) 30대 남성의 62.8%, 40대 남성의 58.5%가 폭음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는 문제성 음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는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최은주, 김춘경, 2017; 최윤정, 2004; Eiden, Colder, Edwards, & Leonard, 2009; Robinson & Rhoden,

1998)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더 심각한 점은 부모의 문제적 음주는 자녀의 발달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알코올 중독부모의 자녀들은 발달단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Lieberman, 2000). 또한 부모의 음주는 자녀의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련, 최윤정, 2003; 윤명숙, 민수영, 이희정, 2014; 이정숙 등, 2003; Davies, Martin, & Cummings, 2018; Holden & Richie, 1991; Werner, 1986).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의 음주문제는 특히 자녀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는 점이다(Domenico & Windle, 1993; Larson, Taggart-Reedy & Wilson, 2001; Stout & Mintz, 1996).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은 타인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김혜선, 2014; Latham 1989; MaCarthy Woods, 1989)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유아기 때부터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iden, 2009; Hussong et al., 2005).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 정도는 학령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아, 권영란, 2014).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부모의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령기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왔으나(김종범, 2008; 이진아, 권영란, 2014; 최윤정, 2004; 현명선, 강의선, 김현례, 2011) 유아를 둔 아버지가 문제성 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이 아닌 아버지의 알코올중독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Hussong et al., 2005)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유아의 대인관계,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모요인으로는 부부갈등을 들 수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 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한다(민은정, 홍창희, 이민영, 2001; Cox, Paley, & Harter, 2001).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윤 등, 2008), 또한 부부갈등은 유아에게 정서적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시킬 수 있다(박미진, 강지현, 2012; 윤해옥, 최효식, 2016).

부부 갈등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칠 수 영향은 또래상호작용의 특성을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부부갈등은 부모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잘 다루는지,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증진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잦은 부부갈등을 목격한 유아는 친구관계에서 갈등해결 방안을 학습한다(이정림 등, 2011). 또한 잦은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을 사용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숙령, 김미정, 조수경, 2014; 임희수, 박성연, 2002; Davies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유아가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 또래와의 갈등 양상이

심해지며(Brent, Rina Ellen, Kenneth, & Lorig, 2010; Feldman, Masalha, & Derdikman-Eiron, 2010), 유아의 대인관계형성 능력과 개인정서조절능력, 친사회성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형아, 2004).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집단에서 높은 영향을 나타내며(임현주, 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효식 등, 2015).

부부갈등은 특히 문제성 음주자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으로,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와 매우 격렬히 다투하기도 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문제성 음주로 인해 가사 책임의 태만, 공격적 언어나 행동이 나타나 별거나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urns, 1984; Orford, 1990; Power & Estauagh, 1990). 이러한 높은 부부갈등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덜 반응적이게 함으로 (Sturge-Apple, Davies et al., 2006)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 알코올중독 아동이 슬픔을 느끼는 것도 부부갈등을 목격하기 때문이었다(Tinnfält, Fröding, Larsson, & Dalal, 2018).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알코올 문제는 부부갈등을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l-Sheikh & Flanagan, 2001; Godleski, Crane, & Leonard, 2018).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또래상호작용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그로 인한 부부갈등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부모의 문제성 음주는 학령기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탐색하였으나 또래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 음주, 부부갈등에 관한 각각의 변인들로 살펴보아 각 변인의 경로와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나타나는 3세의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이 매개적 역할을 통해 만4세에 나타나는 또래상호작용의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부 갈등은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4-5차년도 조사(2011-2012년도)에 모두 참여한 910 가구의 부모와 유아, 그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교사를 포함한다. 한국 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2,0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9차년도 (2018)까지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910 가구의 특성을 보면 남아는 468명(51.4%), 여아는 442명(48.6%)였다. 유아의 월령은 4차 데이터의 경우 만 35개월에서 최대 43개월로 만 3세에 해당되었고, 평균 월령은 만 3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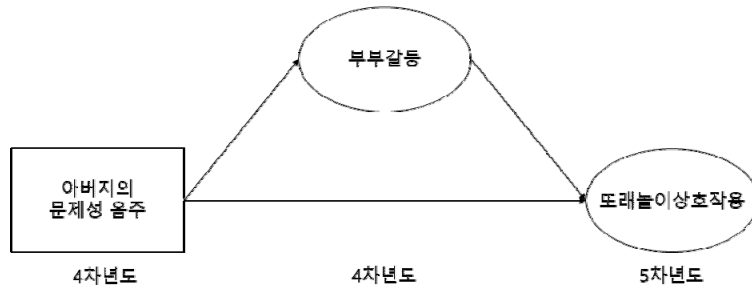
〈표 1〉 연구대상 부모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N=910)	남아	468	51.4
	여아	442	48.6
아버지 연령(N=910)	20대	33	3.7
	30대	704	78.7
	40대	153	17.1
	50대	4	.4
어머니 연령	20대	85	9.5
	30대	749	83.6
	40대	62	6.9
아버지 학력(N=906)	초등학교 졸업	1	0.1
	중학교 졸업	9	1.0
	고등학교 졸업	246	27.2
	전문대 졸업	193	21.3
	대학교 졸업	368	40.6
	대학원 졸업	89	9.8
어머니 학력(N=908)	무학	1	0.1
	중학교 졸업	4	0.4
	고등학교 졸업	270	29.7
	전문대 졸업	256	28.2
	대학교 졸업	337	37.1
	대학원 졸업	40	4.4

개월($SD=1.43$)이었다. 5차 데이터의 경우 최소 만48개월에서 최대 54개월로 만4세에 해당 되었으며, 평균 월령은 만51.01개월($SD=1.20$)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어떠한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1> 참고). 이를 위해 우선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배현진, 2010; 오지현, 2011)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통제변수: 부모 학력, 가구소득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4차 데이터

한국아동패널에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에 관한 문항은 문제성 음주자 선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Saunders et al., 1993)의 10개 문항 중 효율성을 위해 1번부터 3번 문항으로 이루어진 AUDIT-C(consumption questions)를 사용하였다. AUDIT-C는 문제성 음주자 선별에 있어 AUDIT와 대등한 선별능력을 가진다(Bush et al., 1998). 본 문항은 유아의 아버지가 응답하였으며 4차 데이터로

음주 여부 및 횟수, 음주 양, 과음 횟수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 여부 및 횟수는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로 ‘월 1회 이하(1점)’에서 ‘주 4회 이상(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 양은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으로 ‘1잔 또는 2잔(0점)’에서 ‘10잔 또는 그 이상(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음 횟수는 ‘한 번의 술 좌석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으로 ‘전혀 없음(0점)’에서 ‘거의 매일(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AUDIT-C의 한국인 문제성 음주 절단점인 8점을 기준(성정환, 2009; 우성목 등, 2017)으로 비문제성 음주(0), 문제성 음주(1)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비문제성 음주의 경우 589명(64.7%), 문제성 음주의 경우 321명(35.3%)로 분류되었다.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5차 데이터

한국아동패널에서 또래놀이상호작용도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는 5차 데이터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Fantuzzo 등(1995)와 최혜영, 신혜영(2008)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육아지원기관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하위영역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 3개이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 등을 측정하였다. 놀이상호작용의 문항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등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상호작용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s $\alpha = .764$ 로 나타났다. 놀이방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 등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 방해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s $\alpha = .847$ 로 나타났다. 놀이 단절은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등 8문항으로 나타났다. 놀이 단절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s $\alpha = .808$ 로 나타났다. 놀이방해의 일부분항과 놀이단절의 전체문항을 역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4점)’의 범위에서 응답한다.

3) 부부갈등: 4차 데이터

한국아동패널에서 부부갈등은 4차 데이터로 정현숙(2004),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mberg(1994),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mberg(2001)의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 α 는 .918로 나타났다.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통제변수: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집단이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형성되며(오지현, 2011) 어머니 교육수준이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배현진, 2010)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부부갈등의 평균값(표준편차)는 16.76(6.09)로 나타났다. 또래상호작용은 하위요소 별로 놀이상호작용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8.07(3.48), 놀이방해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8.52 (6.01), 놀이단절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7.56(3.60)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 3.0, 첨도의 절대값 10.0 이하의 범위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Kline, 201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부갈등은 또래놀이상호작용과 부적인 상관($r=-.103, p<.01$)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910)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부갈등	8	37	16.76	6.09	0.67	0.08
또래상호작용						
놀이 상호작용	9	36	28.07	3.48	-0.74	1.95
놀이방해	18	51	38.52	6.01	-0.33	-0.31
놀이단절	14	32	27.56	3.60	-0.83	0.26

<표 3> 상관분석

	부부갈등	또래놀이상호작용
부부갈등	1	
또래놀이상호작용	-.103**	1

** $p < .01$

2.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각 요인이 이론변인을 유의하게 측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인 아버지 음주, 부부갈등, 또래상호작용의 측정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인적재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요인적재량은 모든 측정변수에서 .5이상 나타나(최창호, 유연우, 2017)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각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 계산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Critical Ratio
부부갈등				
부부갈등1	1	.983		
부부갈등2	.874	.901	.172	5.091***
또래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1	.689		
놀이방해	1.488	.594	.115	12.981***
놀이단절	1.105	.737	.086	12.904***

*** $p < .001$

였다. 각 잠재요인의 측정변수의 t값은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NFI, IFI, TLI, CFI의 경우 .09 이상, RMSEA은 .0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델적합도는 $\chi^2(df) = 10.172(4)$ ($p < .05$), NFI = .995, IFI = .997, TLI = .992, CFI = .997, RMSEA = .041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chi^2(df)$	NFI	IFI	TLI	CFI	RMSEA
10.172(4)*	.995	.997	.992	.997	.041

* $p < .05$

3. 구조모형 분석

아버지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또래상호작용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 = 47.221(23)$ ($p < .01$), NFI = .981, IFI = .990, TLI = .984, CFI = .990, RMSEA = .034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chi^2(df)$	NFI	IFI	TLI	CFI	RMSEA
47.221(23)**	.981	.990	.984	.990	.034

** $p < .01$

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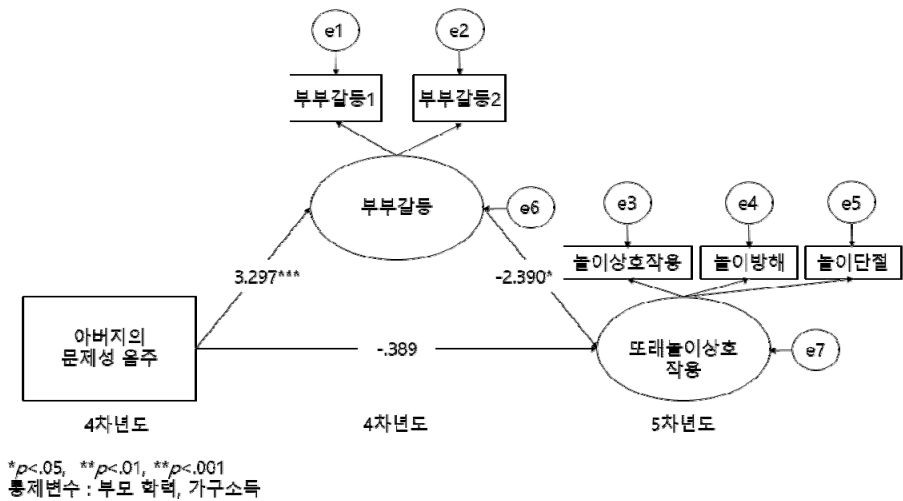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에 정적 영향을, 부부갈등은 또래상호작용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또래상호작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아버지의 음주 음주와 부부갈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itical ratio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부부갈등	.729	.111	.221	3.297***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또래상호작용	-.076	-.015	.196	-.389
부부갈등 → 또래상호작용	-.075	-.099	.032	-2.390*

* $p < .05$,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2)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갈등이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각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다.

<표 8>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부부갈등	.111	.000*	.111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또래상호작용	-.015	-.011	-.026
부부갈등 → 또래상호작용	-.099	.000*	-.099

* $p < .0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5, 간접효과는 -.011, 총효과는 -.026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증가시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갈등이 간접효과를 갖는 완전매개모형으로 부부갈등이라는 매개변인이 또래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부트스트래핑

경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Bounds	Upper Bounds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부부갈등 → 또래상호작용	-.025	-.002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을 사용한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서 -.025, 상한값이 -.002로 나타났다(〈표 9〉 참고). 이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4차,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은영, 2012; 민은정 등, 2001). 문제성 음주자가 있는 가족은 부적절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높아지게 되면서(김효남, 박태영, 1996)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 갈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아버지가 문제성 음주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대중의 위험 의식은 매우 낮으며(최승희 등, 2001), 문제성 음주자의 선별을 위한 알코올 소비 점수도 허용적인 음주문화로 인해 외국보다 더 높

은 절단점을 가지고 있다(우성목 등, 2017). 프랑스의 경우 권장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대중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등(김기경, 이재우, 유형정, 민성호, 2010) 문제성 음주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언론에서 음주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 등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등(송선미, 2017)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으로 음주를 권장과(이해국, 2017) 주류마케팅이 점점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송선미, 2017).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음주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활발히 하여 문제성 음주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비슷하며(김숙령, 김미정, 조수경, 2014; 임희순, 박성연, 2002; Davies et al., 2018),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임현주, 2015; 최효식 등, 2015).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매우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며(우연희 등, 2012)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고(장희숙, 2002) 대립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Davi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을 하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부부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빠른 시기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부모교육에서 부부갈등이 유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에 부모-자녀간의 대화법도 중요하지만, 부부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대화법과 부모-자녀간의 대화법을 함께 교육해 유아가 부모의 긍정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모델링하여 또래 상호작용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은 높이고,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 음주가 가족기능을 통해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은주, 김춘경, 2017, Davies et al., 2018), 아버지의 문제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알코올중독의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민은정 등, 2001)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로 인해 부부갈등이 높아진 경우에 또래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또래상호작용에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의 해결을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등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성 음주 그 자체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갈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데다 가족들이 함께 문제성 음주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의 재화에 효과적이므로(김소야자 등, 1989) 아버지가 문제성 음주자인 경우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빠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가 시간을 보내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가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을 제시해야한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에서 유아가 부부갈등 상황에서 학습한 상호작용을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요인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가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모방할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을 보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노성향, 201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의 아버지 음주를 자가보고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아버지 스스로는 자신의 음주에 대해 자가보고를 적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 음주에 대해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차후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데이터에서는 결측치가 너무 많아 어머니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없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어머니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부모의 음주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또는 알코올 중독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김혜련, 최윤정, 2003)을 살펴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또래상호작용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문제성 음주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갈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영향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라는 경로를 검증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응답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어머니가 응답한 부부갈등, 교사가 응답한 또래상호작용과 같이 풍부한 자료의 활용하였으며, 또래상호작용이 발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3세에서 경험한 부부갈등

이 또래상호작용이 발달하여 또래와 함께 노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4세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문제성 음주를 하는 아버지를 둔 가정의 경우 부부관계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또래상호작용에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가영 (2015). 세계 주류 시장동향 및 소비현황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187, 청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기경, 이재우, 유형정, 민성호 (2010).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음주규제의 법정책과 입법 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18(2), 178-200.
- 김민혜 (2018). 문제음주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성별 차이.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7-12.
- 김소야자, 이만홍, 황미희, 남궁기, 김병후, 김선아 (1989). 알콜 중독자 가족과 일반가족의 정신증상 발현율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6), 1073-1080.
- 김숙령, 김미정, 조수경 (2014). 어머니심리특성과 부부관계특성이 영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05-124.
- 김은영 (2012). 어머니, 아버지의 음주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2012(1), 159-159.
- 김종범 (2008).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혜련, 최윤정 (2003).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37-69.
- 김효남, 박태영 (1996). 의사소통 문제를 지닌 알콜중독자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4, 47-80.
- 남궁령 (2014).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3), 131-157.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적응행동: 성별중심. *생활과학연구논총*, 3, 17-28.
- 노성향 (2015). 가정환경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21-35.
- 민은정, 홍창희, 이민영 (200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21-132.
- 박미진, 강지현 (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31-352.
- 배현진 (2010). *어머니 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 1-2*. 세종: 보건복지부.
- 성정환, 도현진, 오승원, 임열리, 최재경, 조희경, ... 이창훈 (2009). 일차진료에서 문제음주자 선별을 위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lcohol Consumption Questions (AUDIT-C)의 타당도 조사.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9), 695-702. doi:10.4082/kjfm.2009.30.9.695
- 송선미 (2017). 대중매체를 활용한 주류마케팅의 실태.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9-24.
- 송영주 (201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간 관계에서 유아 기질요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2), 57-79. doi:10.18023/kjece.2017.37.2.003
- 신유림, 김선영, 김숙이, 나종혜, 문혁준, 박진옥 ... 조혜정 (2007). *놀이지도*. 서울: 창지사.
- 오지현 (2011). *어머니의 성격유형 및 놀이참여 형태와 만 5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성목, 장옥진, 최화경, 이영렬 (2017). 위험음주자 선별을 위한 한국판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알코올 소비 점수(AUDIT-C), 3번문항(AUDIT3)의 유용성과 최적 절단값. *한국중독정신의학*, 21(2), 1-6.
-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2), 185-201. doi:10.5723/KJCS.2012.33.2.185
- 이정립,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명숙, 민수영, 이희정 (2014). 아버지의 음주와 자녀의 우울: 부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 조절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5(1), 93-126.
- 윤해옥, 최효식 (2016).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유아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유아교육연구*, 36(3), 358-379.
- 이선남, 이경옥 (2015). 유아의 초기 발달수준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4), 381-396.
- 이정숙, 권영란, 최봉실 (2003).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에 따른 중학생의 정서, 행동 문제의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2(4), 503-511.
- 이진아, 권영란 (2014).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영향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5), 495-503. doi:10.4040/jkan.2014.44.5.495
- 이해국 (2017). 주류 광고/마케팅과 음주문제.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25-44.
- 임형아 (2004). *부부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옥분, Rubin, K. H.,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김정은 (2011). 영아기 정서와 기질,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 *인간발달연구*, 18(1), 151-168.
- 정현숙 (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최승희, 김명, 김광기 (2001). 서울 지역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에 관한 행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2), 27-44.
- 최연화 (2011). 남녀 유아의 놀이성,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구. *육아지원연구*, 6(2), 147-164.
- 최윤정 (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은주, 김춘경 (2017). 부모의 문제성 음주에 따른 모 우울, 행복감, 가족기능, 아동문제 행동 간의 구조분석. *아동과 권리*, 22(2), 215-237
- 최창호, 유연우 (2017).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103-111. doi:10.14400/JDC.2017.15.10.103
- 최혜영, 이은혜 (2005).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5), 319-342.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부부갈등, 우울,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
- 현명선, 강희선, 김현례 (2011). 부모의 음주정도와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4), 355-364.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PA.
- Burns, A. (1984). Perceived causes of marriage breakdown and conditions of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562. doi:10.2307/352597
- Corsaro, W. A. (1985). Friendship and peer culture in the early years. Norwood: Albex.
- Cox, M. J., Paley, B., & Harter, K. (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J. Grych & F. Fincham (Eds.), *Child development and interparental conflict* (pp. 249-27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es, P. T., Martin, M. J., & Cummings, E. M. (2018).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social problems: Insecurity and friendship affiliation as cascading media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doi:10.1037/dev0000410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doi:0033-2909/94
- Domenico, D., & Windle, M. (1993).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among middle-aged femal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659-666. doi:0022-006X/93/S3.00
- Eiden, R. D., Colder, C., Edwards, E. P., & Leonard, K. E. (2009). A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competence among children of alcoholic and nonalcoholic parents: Role of parental psychopathology, parental warmth, and self-regulation.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3(1), 36-46. doi:10.1037/a0014839
- El-Sheikh, M., & Flanagan, E. (2001).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children's adjustment: Family conflict and parental depression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5), 417-432.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Manz, P. H., Canning, S., & Deh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doi:10.1016/0885-2006(95)90028-4

- Feldman, R., Masalha, S., & Derdikman-Eiron, R. (2010). Conflict resolution in the parent-child, marital, and peer contexts and children's aggression in the peer group: A process-oriented cultur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46*(2), 310-325. doi:10.1037/a0018286
- Godleski, S. A., Crane, C. A., & Leonard, K. E. (2018). Parents' concordant and discordant alcohol use and subsequent child behavioral outcomes. *Addictive Behaviors, 79*, 81-85. doi:10.1016/j.addbeh.2017.11.026
- Grych, I.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doi:0033-2909/90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2), 311-327. doi:10.2307/1131005
- Hussong, A. M., Zucker, R. A., Wong, M. M., Fitzgerald, H. E., & Puttler, L. I. (2005).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41*(5), 747-759. doi:10.1037/0012-1649.41.5.747
- Johnson, J. E., Christie, J. F., Yawkey, T. D., & Wardle, F. P. (1987).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cott, Foresman & Co.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Lamb, G. D. (1986). Components of charge movement in rabbit skeletal muscle: the effect of tetracaine and nifedipine. *The Journal of Physiology, 376*(1), 85-100.
- Larson, J. H., Taggart-Reedy, M., & Wilson, S. M. (2001). The effects of perceived dysfunctional family-of-origin rules on the dating relationships of young adul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3*(4), 489-512.
- Latham, M. S. (1989). *Relationship patterns of female offspring of alcoholics: An examination of intimacy and individual in marriage*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198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9:3446B
- Lieberman, D. Z. (2000). Children of alcoholics: an update.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12*(4), 336-340. doi:10.1097/00008480-200008000-00009
- Lin, T. J., Justice, L. M., Paul, N., & Mashburn, A. J. (2016). Peer interaction in rural preschool classrooms: Contributions of children's learning-related behaviors, language and literacy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7*,

106-117. doi:10.1016/j.ecresq.2016.04.001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McCarthy Woods, J. M. (1989). *The relationship of intimacy to parental alcoholism, trust and identity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San Diego, 198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1116B

Orford, J. (1990). *Alcohol and the family*. In *Research advances in alcohol and drug problems* (pp. 81-155). Springer, Boston, MA.

Power, C., & Eстаugh, V. (1990). The role of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in shaping drinking behaviour in early adulthood. *Addiction*, 85(4), 521-530.

Robinson, B. E., & Rhoden, J. L. (1998). *Working with children of alcoholics*. Sage.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Stout, M. L., & Mintz, L. B. (1996). Differences among nonclinical college women with alcoholic mothers, alcoholic fathers, and nonalcoholic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66-472. doi:0022-0167/96/S3.00

Tinnfält, A., Fröding, K., Larsson, M., & Dalal, K. (2018). "I Feel It In My Heart When My Parents Fight": Experiences of 7-9-Year-Old Children of Alcoholic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5(5), 531-540. doi:10.1007/s10560-018-0544-6

Werner, E. E. (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1), 34-40. doi:10.15288/jsa.1986.47.34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test the direct effect of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on a child peer interact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drinking and child peer interaction.

Methods: We analyzed the longitudinal data of three-year-old 910 children from the 4th to 5th waves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 2011 and 2012. The main analysis method w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conflict, and the marital conflict directly influenced the child peer intera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influenced child peer interaction indirectly through marital conflict. We discuss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duce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key words: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child peer interaction, marital conflict,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접수 : 2018년 8월 31일, 수정본 접수 : 2018년 11월 1일, 채택 : 2018년 11월 22일)